

2023  
VOL.578

07

멈추지

않는

성장의 동력,

혁신



화이트 해커 박찬암

월간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내일

혁신은 발전과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 CONTENTS

2023 July VOL. 578

- 04 **내일을 열며**  
- 나는 혁신한다, 고로 존재한다
- 06 **고용 아카이브**
- 12 **멘토크**  
- 화이트 해커 박찬암을 만나다
- 16 **레벨업 스토리**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의 든든한 지원군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20 **슬기로운 회사**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주)선영종합엔지니어링
- 24 **기자단이 간다**  
- 최대 규모 직업 체험관 <잡월드> 방문기
- 26 **MOEL News**
- 30 **잡 큐레이션**  
- 재난에 대처하는 스마트 유비무환  
기업재난관리사
- 34 **취업 시크릿**  
- 잡담의 힘! 업무 효율과 친밀감 쑥~
- 36 **시네마 클래스**  
- 상생의 혁신, 천문:하늘에 묻는다
- 38 **워커북**  
- Love My Self, 지친 나를 위해 나를 돌보는 방법
- 40 **넬톤**
- 42 **고용한입**
- 43 **MOEL letter**

---

##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78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http://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http://www.labor21.kr) 기획·제작 한국애드



## INNOVATION

# 나는 혁신한다, 고로 존재한다

모두가 혁신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혁신을 이루어내진 않습니다.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묵은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묵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일 텐데요. 제 일을 잘하고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굳이 바꾸어 새롭게 할 필요가 없겠죠. 고여서 썩은 것은 도려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새살이 돋을 수 있습니다. 썩은 것을 덮은 채 살이 돋으면 예측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로 번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썩은 것을 도려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도 분명 있습니다.

혁신은 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력입니다. 혁신을 향한 담대한 행동만이 새로운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는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자만이 발전된 내일과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고인 물이 되시겠습니까. 고잉(going)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도 여러분의 혁신을 응원하며 함께 가겠습니다.







#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다 국민과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규제혁신 제도

더 나은 삶을 지향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은 비로소 의미를 찾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찾아 개혁하고 균형적인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떤 혁신들이 있었을까요?



# 1 노동포털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요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민원업무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빠르게 볼 수 있어요. 온라인과 모바일로 각종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민원인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 근로자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조회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퇴직금 등 수당 자동계산 기능

## 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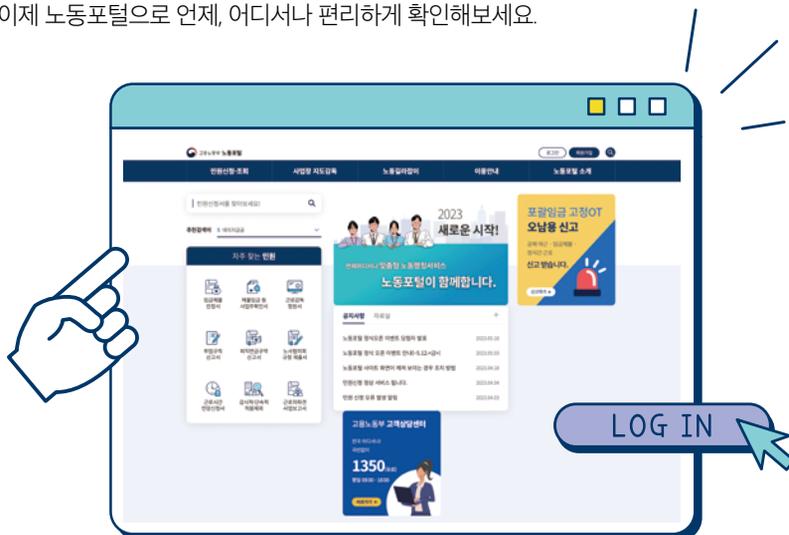
인허가 신청 및 결과 확인  
노동관련 기업보고서 제출  
사업장 지도감독 결과 조회

## 노동법 정보



노동관계 법령  
노무관리 가이드북  
테마별 노동법 동영상

그동안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 후 연락을 받거나 회신 문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제 노동포털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해보세요.



## ② 출퇴근길 걱정 없이,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보조공학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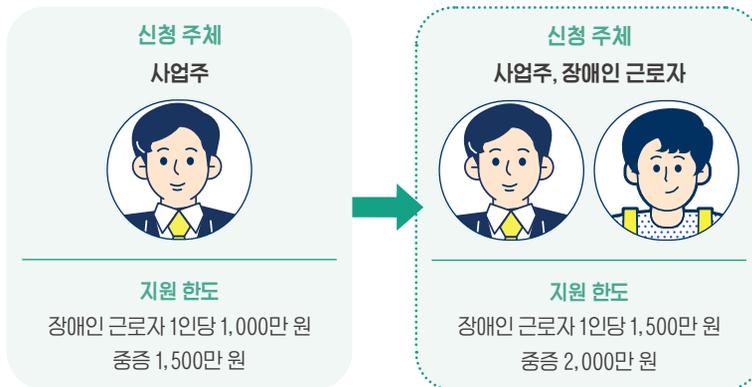
### ! 보조공학기기란?

공학과 전자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의 재활 및 신체적 불편함을 돕는 기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점자 정보 단말기, 기능성 의자, 골전도 보청기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지금까지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보조기기를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만약 사업주가 이 제도를 모르거나 관심이 없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게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령에서는 신청자 주체와 더불어 장애인 근로자 지원 한도도 바뀌었어요. 원래는 1인당 1,000만 원(중증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기기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고기능 장비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 고기능 장비의 경우, 지원한도 초과분은 장애인 근로자 부담 덕분에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출근과 원활한 업무 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③ 더 많은 사업장에서 외국인력 재입국 특례가 확대됐어요

**i 재입국 특례란 무엇인가요?**  
외국인근로자는 비자 때문에 출국과 입국을 반복해야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요. 그 기간을 1개월로 줄이고 한국어 시험을 면제시켜주는 제도가 재입국 특례입니다

재입국 특례는 제조업 사업장의 힘든 근무환경에서 오래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요청으로 출국 1개월 후 바로 재입국해 다시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0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에서만 재입국 특례가 적용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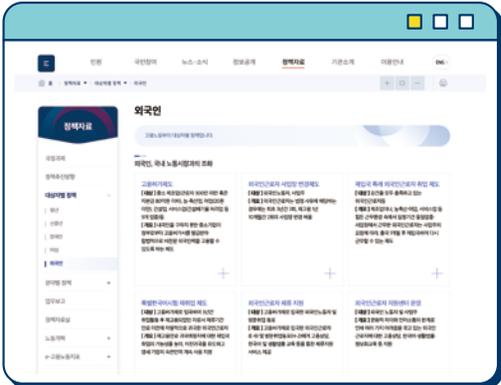
이번 혁신으로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제조업 사업장과 더불어 건설업 사업장에서도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 갈수록 사업장의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재입국 특례 확대로 많은 사업장의 고민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문의처 외국인력담당관실 ☎ 044-202-7145

**i**

재입국 특례 적용 대상자와 신청 과정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http://www.moel.go.kr)) 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의 '외국인'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입국 특례는 **1회만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The screenshot shows the MOEL website's policy page for 'Foreigners'. It lists various categories such as 'Foreigners', 'Foreigners with special skills', and 'Foreigners with special talents'. The 'Foreigners' category is highlighted, and it includes sub-sections like 'Foreigners with special skills' and 'Foreigners with special talents'. The page content is in Korean and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policies for each categ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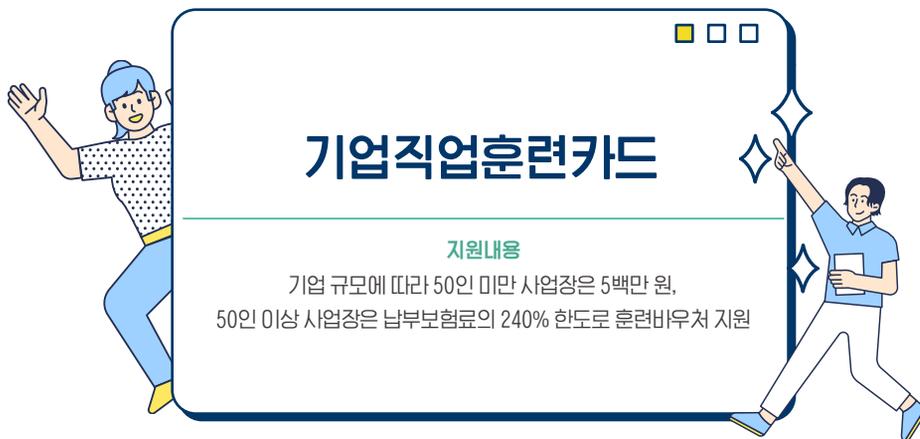
## 4 기업의 부담을 싹! 날려주는 기업직업훈련카드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바우처를 지원해드립니다. 중소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중소기업은 훈련운영 전담자가 따로 없어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훈련을 선택하는데, 훈련비의 10%를 지불해야 하니 부담이 큼니다.

기존에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활용하여 자체훈련을 했던 기업은 훈련과정을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웠습니다. 입력항목 32개의 복잡한 절차와 자부담 비용이 10% 부과되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산 입력항목을 32개에서 16개로 줄이고, 자부담비를 면제했습니다. 행정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 신청 방법은 ([www.hrd4u.or.kr](http://www.hrd4u.or.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 5 협동로봇과의 작업으로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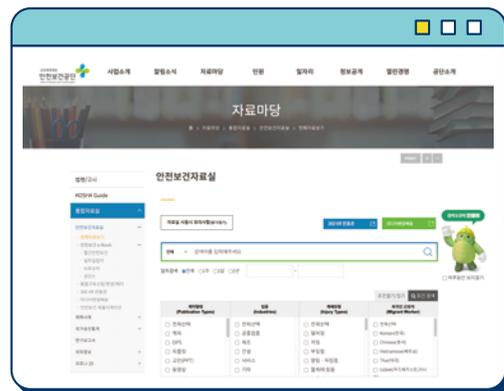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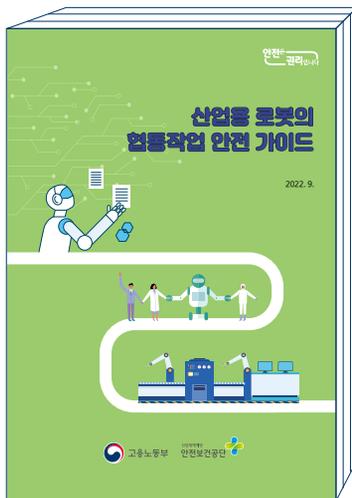
### i 협동로봇이란

산업용 로봇은 제조·물류 등 산업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위험하거나 단순한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로봇이에요. 최근에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협동하여 작업하는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때 협동로봇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협동로봇을 사용하려면 사업주가 사업장에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로봇제조사에서 안전기준을 거쳤음에도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을 때까지는 울타리를 두고 작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 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소리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 스스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 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가 바로 그것인데요.

사업주가 작업환경에 맞게 조치를 취하면 울타리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분야에 협동로봇이 확산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www.kosha.or.kr\)](http://www.kosha.or.kr) 내 통합 자료실에서 검색을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천재 해커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CEO가 되기까지 **화이트 해커 박찬암을 만나다**

변화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없다.

지키려는 자, 업데이트 하라. 이기려는 자, 혁신하라.



2009년 HITB CTF 세계 해킹대회 및 CODEGATE 국제해킹방어대회 우승을 거머쥔 한국의 한 대학생 천재 해커는 그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8년 **美 포브스** 선정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된다. 그는 바로 불법 해킹에 대해 시스템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이른바 화이트 해커이자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주)스틸리언의 대표이사 박찬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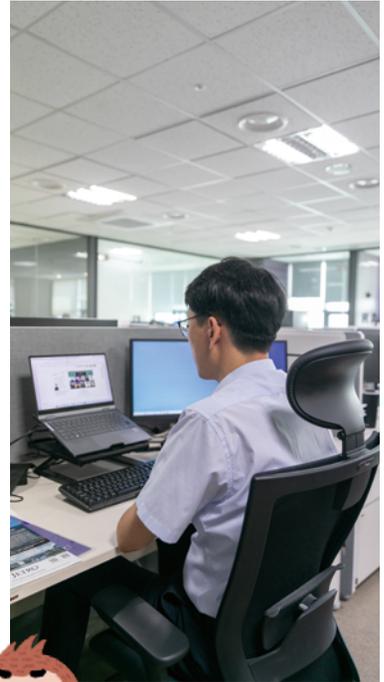
**Q. 해커라는 특수한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 때 해커가 멋있어 보여 프로그래밍 책을 공부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한 가지 일에 파고들면 끝을 봐야 하는 제 성향까지 더해져서 재미로 시작한 공부와 생업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직업적 사명감도 생기고요. 어찌 보면 운이 좋았어요. 우연하게 재미있어 보이는 걸 시도했는데 우연하게 적성에 잘 맞았던 거죠.



**Q. 블랙 해커와 화이트 해커의 싸움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도 하던데요. 화이트 해커로 구분되는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가장 명확한 구분은 법적인 테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면 명백히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법망 위에 존재하는 것, 바로 도덕적 가치입니다. 블랙도 화이트도 아닌 그레이존도 분명 있습니다. 개인이 높은 윤리 의식을 가져야 불법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화이트 해커로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트 해커란?**

블랙 해커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의 해킹, 사전 방어 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안 전문가이다. 최근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면서 화이트 해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Q. 지금껏 다양한 사이버 테러나 보안 사건 사고들을 겪으셨을 텐데요. 가장 충격을 준 보안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2013년 발생한 3.20 전산망 마비사태입니다. 주요 언론사와 기업의 전산망이 모조리 마비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제 파악을 위해 정부 기관과 방송사 등과 소통하고 인터뷰나 토론에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사건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보안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너무 컸어요. 보안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보안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신경을 많이 써 왔습니다. 당시엔 해커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습니니다. 나쁜 사람, 범죄자란 시선이 파다했지만 지금은 IT 산업에서 연봉 2, 3억 원을 넘기는 고급 인력 대우를 받습니다.



**Q. 개인의 보안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뚫리고 있는데요. 수법이 날로 세밀해지는 피싱은 물론 개인 SNS나 메일의 계정 해킹 등 피해가 일상 속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보안법이 있을까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안을 지키는 일은 간단합니다. 웹 브라우저나 휴대폰 업데이트를 즉각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보안 패치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활용한 피싱은 무언가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에 공인된 앱 스토어 외 링크를 통해 설치하는 것은 악성코드일 확률이 높습니다.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 업무 특성상 컴퓨터 앞에서 오래 집중하고, 야근도 잦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방어하고 예방하는 일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 같아요. 대표님의 건강 보안을 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예전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대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외부 행사에서 발표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건강관리는 간단한 편입니다. 회사가 12층에 있는데, 출근할 때 계단을 이용합니다. 벌써 몇 년 정도 되었네요. 꾸준히 한 것들 중 하나가 계단 오르기입니다.



**Q. 대표적인 화이트 해커로서 해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혁신, 기업의 경영자로서도 혁신은 늘 중요한 화두일 텐데요. 성공적인 혁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혁신을 완수하는 데는 혁신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그에 맞





는 지식을 보유하는 것,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중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더라도 관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도 회사가 커지면서 조직 구조 개선을 해야 했습니다. 혁신에 성공은 했지만 여러 입장을 조율하고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가는 과정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현재 국방부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어떤 부분을 혁신해야 하는지 알아도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관성을 깨는 일이 늘 어려운 일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앞으로 대표님이 이루고 싶은 꿈, 목표가 있나요?**

보안 업무는 사회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혁신을 준비하는 「월간내일」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혁신할 때 가장 힘든 게 실천에 옮기는 일입니다. 작은 목표부터 세우고 차근차근 달성하다 보면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계획만 세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막상 실천에서 막히죠. 나만의 작은 목표, 작은 성공들을 쌓다 보면 어느덧 혁신에 가까워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의 든든한 지원군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일요일에 찾아가면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한국어 강의를 듣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로 붐볐습니다.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센터의 운영교육팀 신혜영 팀장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행사를 실시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귀국 의식을 심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매주 일요일 한국어 교육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국 2년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신용카드 사용법, 은행 거래법 등



“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될게요!”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신혜영 팀장

의 경제교육도 제공합니다. 이들이 비자 유효기간 종료 후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귀국 의식을 심어주고 한국에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자금관리법, 고국에서의 재취업 및 창업 등에 대해 조언해줍니다.

“7월 2일에는 센터에서 도전 골든벨 퀴즈대회도 열어요. 퀴즈 주제는 한국어, 한국 문화, 고용허가제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로서 꼭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들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4월에는 <2023년 아시안스마일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16개국 외국인 근로자 700여 명이 모여 체육대회, K-POP 대회, 한국말 대회 등을 하며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좋은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었어요”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 덕분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이들에게 센터는 든든한 울타리라도 같은데요. 한국어 수업을 듣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 이곳을 방문하는 세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보았습니다. 고국에서는 교사, 학생 등의 신분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직장인으로 거듭난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 네팔에서 온 구룽 부팔(GURUNG BHUPAL)씨 이야기

#### 높았던 한국어 장벽, 이제는 통역까지 해냅니다

네팔에서 7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구룽 부팔 씨는 직업적 보람에 비해 적은 수입 탓에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2013년 입국, 현재는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조차 하기 어려웠던 그였지만 근무가 없는 일요일이면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찾아 한국어 강의를 들었고, 함께 공부하는 근로자들과 열심히 소통하며 한국어 실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어가 서툰 네팔 사람들을 위해 센터에서 통역 봉사활동까지 할 정도로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 인도네시아에서 온 데스만 아리프(DESMAN ARIF)씨 이야기

####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어요

2014년 처음 한국에 온 아리프 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습니다. 현재 원단 코팅 등의 업무를 하며 첫 직장에서 9년째 근무 중입니다. 낯선 타국 생활이었지만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매주 일요일 진행되는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과 직원들과의 진솔한 상담 시간은 그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아리프 씨는 2년 후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 한국을 궁금해하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 미얀마에서 온 비예표 아웅(PYAE PHYO AUNG)씨 이야기

#### K-드라마 팬에서 K-직장인의 꿈을 이뤘어요

주말마다 아버지의 시계 가게 일을 돕고 사원에서 봉사하던 미얀마 대학생 비예표 아웅 씨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학교 졸업 후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를 이어주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이 10년째 접어든 비예표 아웅 씨는 직업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외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의 통역 봉사, 고국 미얀마를 위한 후원 모금 활동을 비롯, 오는 10월 15일까지 대구교육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무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이라는 다문화 전시회의 주인공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웅 씨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 우리는 보수적인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주)선영종합엔지니어링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임금 격차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용 평등 문화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고용 평등 공헌 포상'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한 시상식에서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 사이 대통령상을 받은 한 중소기업이 눈에 띄는데요. 전통적으로 남초 업종으로 분류되는 전문 기술 기업 ㈜선영종합엔지니어링이 바로 그곳입니다.



## Smart Survey, Better Life

육·해상의 다양한 측량조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측량 전문 기업 ㈜선영종합엔지니어링은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35년째 업력을 이어오고 있는 장수 기업입니다. 공간정보산업이란 지도나 위치 등의 공간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는데요. 모든 국가 기간 산업의 기본인 '측량(Survey)'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기업의 슬로건인 'Smart Survey, Better Life'처럼 스마트한 측량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 “우리는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보수적인 전문 기술 기업이 남녀고용평등 우수 기업으로 공헌 포상 대통령상을 받았다니 뜻밖으로 여겨질 텐데요. 여성 직원 비율이 업종 대비 31% 높고, 해양 및 수치모델링 부서는 여성 직원 수가 남성 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작년도 출장을 가장 많이 간 사람 역시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40대 대표이사를 필두로 자율적으로 일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젊은 조직 문화를 추구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과 사내강사제도(멘토링) 등 구성원 개개인이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배움을 권하는 사내 문화를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김영필 대표이사는 자신들

은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회사라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안정과 보수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집니다.

### 고용은 안정적으로, 지원제도는 적극적으로

2018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을 준비하던 중 소기업이 놓치는 점을 정비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각종 정부 권장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왔다는 (주)선영종합엔지니어링. 채용에 차별을 두지 않고 여성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 결과 여성 직원이 늘었고,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여성들의 고용 유지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남녀 고용 평등은 향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입사 10년 차인 해양사업부 김소라 과장은 출산 축하금과 선물은 물론, 경영관리팀의 적극적인 안내 덕분에 1년 휴직에 4개월 추가 휴직 그리고 단축 근로까지 모성보호제도를 꼼꼼히 챙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의 선제적 노력은 물론 휴직으로 인한 업무 부하에도 동료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러운 조직 문화 또한 주효했다고 합니다.

### 대체인력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진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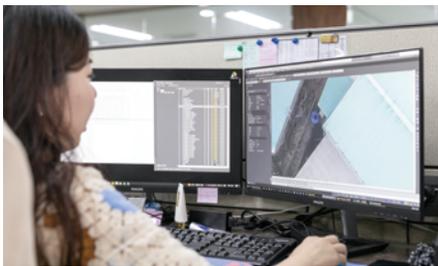
휴직자를 대신해 인력을 채우는 비용과 노력은 작은 기업에겐 더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대체인력 채용에도 반드시 정규직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데요.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 용역의 필요와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육아 휴직이 실질적 고용 증대로 이어지며 저출산 극복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이뤄내는 현상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또한 선영에너지업데이(매주 마지막 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 선영패밀리데이(가족과의 시간을 위한 연 1회 휴가비 지원) 등 회사의 워라밸 독려 제도와 직원 재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제도, 그리고 측량 현장의 직원들에 고가의 안전 장비를 지원하는 모습 등에



서 회사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 안정적 기업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3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온 기술 전문 기업이 적극적으로 남녀 고용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쩌면 특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꾸준히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주)선영종합엔지니어링은 보여줍니다. 기업 내부에서는 직원들에게 스마트한 삶을 보장함으로써 더 나은 업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보수적인 기업임을 잘 알고 그럼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주)선영종합엔지니어링. 이들의 스마트한 노력이 다가올 35년 또한 더 나은 시간으로 만들 것을 기대해 봅니다.



## Interview



### 여성 후배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고 싶어요

해양사업부 | 김소라 과장

#### Q. (주)선영종합엔지니어링에 입사한 계기는?

A. 대학에서 해양학 수업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사실 물을 무서워하는데도 해양사업부에서 10년째 근무 중입니다.

#### Q. 회사 기업 문화 중 만족스러운 부분은?

A. 저는 육아하는 여성입니다. 남성들이 하는 일을 내가 한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처음엔 업계의 편견과 현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차별 없고 자율적인 업무 문화 덕분에 일에 대한 재미를 느끼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Q. 앞으로의 목표나 꿈은?

A. 여성이 많지 않은 분야라 후배들에게도 저의 배움을 나누고 싶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저도 계속 발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 기본은 오래 갑니다.

### 화려함은 없지만 없어서 안 되죠

(주)선영종합엔지니어링 | 김영필 대표이사

#### Q. 회사가 제시하는 기업상 &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은?

A. 우리 회사는 '자율과 도전'의 기업입니다.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자율과 도전의 정신만 있다면 오늘을 해결하듯 내일을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인재는 전공 불문, 공간정보 분야에 뜻이 있거나 자기 발전에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은 오래 갑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오래 꾸준히, 시대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 발전할 수 있는 인재라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 Q. 입사를 위한 구체적인 스펙을 말한다면?

A. 자율과 도전정신을 0순위로 두지만, 관련학과(지적학, 해양학, 공간정보학과 등) 전공자라면 아무래도 업무 수행에 더 용이하겠지요. IT 관련 전공도 좋고, 측량 관련 자격증 보유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 취재하러 왔다가 정신없이 놀다 갑니다 최대 규모 직업 체험관 <잡월드> 방문기



안녕하세요? 제15기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차형현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잡월드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직업체험관입니다. 직업체험관이라고 하면 딱딱한 교육시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방문해 보면 유명 테마파크 부럽지 않은 웅장한 규모와 시선을 사로잡는 신기한 시설들로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그럼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 차형현 정책기자의 생생한 방문 기사는 고용노동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lab\\_suda](https://blog.naver.com/molab_sud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의 자랑이라면 무엇보다 다양한 직업 체험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참여자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직접 그 직업인이 된 것처럼 체험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모델, 요리사, 유튜버 등 인기 직업뿐 아니라 사이버 보안, 해양교통관제, 전기안전 등 전문 분야의 직업까지 정말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오신 부모님이나 인솔자가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모니터를 설치하여 아이들의 체험 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안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공간

우선 탁 트인 잔디 광장을 지나 잡월드 건물에 들어서게 되면 화려한 로비에서부터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공간 가득 다양한 조형물과 설치 미술, 유명 작가의 그래피티 등을 만날 수 있기에 흡사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도 받게 되었습니다. 성인인 저도 이렇게 설레는데 아이들이 온다면 정말 신날 것 같네요.

## 세상의 모든 직업 체험

저는 한국잡월드 홍보팀 조보선 과장님의 안내로 잡월드 곳곳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잡월



**독특한 공방체험 <메카이브>**

작년에 새로 문을 연 메카이브 공간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메카이브란 Makers + Archive의 합성어로, 만들고 창작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놀이처럼 배우는 교육 경험을 지향한다는 뜻이라고 해요. 이곳에서 청년 작가들이 직접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갓 직업인이 된 청년 작가들을 입주시켜 직접 클래스를 열게 하여 성장의 기회를 주는 방식이라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자수, 글라스 아트, 목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함께 오신 부모님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 메카이브 한쪽 대형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범민' 작가의 초대형 그래피티 감상도 놓치지 마세요.



**홍보팀이 추천하는 <진로설계관>**

소개 드린 다양한 직업 체험관과 메카이브 이외에도 놀이형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알아보는 진로설계관, 대한민국 대표 숙련기술인의 특강도 들을 수 있는 숙련기술체험관 등 총 5개의 체험관이 있는데요. 홍보팀 조범선 과장님은 '진로설계관'을 꼭 가볼 것을 추천하셨어요. 기존의 설문조사 적성 검사 형식이



아닌 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자신의 적성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해요. 또한 부모님들에게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자녀의 역량을 파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재를 마치며**

'한 번도 안 온 학생은 있지만, 한 번만 온 학생은 없다'는 말이 실감될 정도로 초·중·고 학생들의 높은 재방문율을 자랑하는 잡월드인데요. 그만큼 다양한 연령대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저도 학생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였던 잡월드를 취재하러 방문하게 되어 새로운 경험이었는데요.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말 친구끼리 또 가족끼리 잡월드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잡월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미예약 방문객의 경우 잔여석에 한해 당일 현장 신청이 가능한데요.  
 잔여석 확인은 고객센터(1644-1333)로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그 외 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잡월드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www.koreajobworld.or.kr](http://www.koreajobworld.or.kr) ※ 정기휴관일 매주 일요일/1월 1일/설날·추석연휴

## 1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슬기로운 '내 일' 찾기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청년일경험



지난 5월 30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2023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발대식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 쿠팡, 한국생산성본부, 강원의료기

기산업협회,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등 72개 기업과 운영기관이 모두 참석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뜻을 모았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선도 기업들의 일경험 제공에 적극 지원의 뜻을 전하며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2023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 시장 변화에 발맞춰 미취업 청년에게 실제 취업에 유의미한 일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는데요. 지난 5월 26일~6월 11일 1차 통합 공고를 시작으로 7월 중 2차 통합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누리집(www.work.go.kr/experi)'에서 상세한 정보 확인 및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차별 없는 고용이 선사한 특별한 선물

#고용평등공헌포상 #남녀상생일터 #지속가능삶터

고용노동부에서는 2001년부터 고용 평등의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5.25~31)'을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고용평등을 위해 공헌한 개인과 기업을 시상하는 <고용평등 공헌포상>이 지난 5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남녀상생 일터, 지속가능 삶터"를 주제로 한 이번 시상식은 유공자 11명과 우수기업 25개소에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채용과 승진 등에서 성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법정 기준 이상의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고용 평



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한 기업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평등과 출산·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현장의 근로자, 기업의 노력과 열정이 더해져 남녀 모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상생의 일터를 만들자고 전했습니다.

### 3 현장의 '안전' 보장, 미래의 '안정' 보장

#윤석열정부출범1년 #국정과제현장점검 #중대재해감축 #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의 실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정식 장관은 지난 5월 26일 HD현대중공업(울산동구)과 협력업체 (주)금영산업을 찾았습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두 원·하청 기업의 현장 안전 활동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와 위험성평가 운영상황,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현황, 의견 청취 등의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높은 숙련 수준을 요구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업의 특성상, 원·하청 협력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이정식 장관은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원·하청이 한 몸처럼 상생해야 한다며, 이번에 개편된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위험성평가 제도의 확산과 안착, 원·하청 상생 지원 확대 등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4 소소하지만 확실한 안전의 확산 '안전문화확산협약'

#일상속안전증시 #안전문화확산협약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들어보셨나요.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지방노동관서 39개 지역에 설치한 민관합동 협의·집행기구로, 800여 개의 공공·민간부문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해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결의대회, 기획 행사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건강보험공단, 대한안전협회, 대한보건협회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각 지역에서는 롯데웰푸드(서울),

대선소주(부산), 에스피시(성남), 쿨피스(수원), 성경 김대전) 등 지역 내 사업장 등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엔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과 서울우유협동조합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서울우유 제품(약 300만 개)에 안전문화 홍보문구를 담고, 서울우유 사업장 곳곳에 안전문화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문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별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격려하며, 우유를 마시는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안전 중시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장 또한 이번 협약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성에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 안전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 사회가치경영(ESG) 실천에 한발 더 나아가 갈 것임을 전했습니다.

## 5 워킹맘&대디가 말한다! 모두가 맘 편한 일터 만들기

#워킹맘워킹대디 #현장멘토단 #일가정양립



지난 6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20명의 일하는 엄마 아빠들로 구성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실제로 일과 육아를 병행 중인 멘토들을 위해 비대면(ZOOM) 발대식도 동시에 치러졌는데요. 이들 현장 멘토단은 향후 1년 동안 현행 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한 경험담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제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직장 문화 및 제도 개선, 홍보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모

공동육아(아빠의 육아참여) 확산을 위한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부 발대식에 이어 2부에서는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 난제와 현 육아 지원 제도의 효과를 높일 개선 아이디어 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멘토들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및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 의견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멘토단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일하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6 올해도 큰 거 온다! 더위로부터 안전한 일터 만들기

#폭염대비 #근로자건강보호대책발표 #폭염취약사업장점검



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6일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 물류, 경비, 생활폐기물 등 산업·직종별 유관기관들과 함께 직종별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폭염 기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홍보 등 협조방안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지난 5월 말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발표한 고용노동부는 6월1일부터 3주간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자율 점검 이후 온열 질환 예방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 2023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산업현장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한  
근로자대표, 사용자 및 발전유공자를 찾습니다.

추천요건(2023. 7. 21. 현재)

## 포상대상

근로자대표  
사용자

노사협력 실천,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없는 좋은 일터조성, 일·생활의 균형실현, 원·하청 상생, 고용유지 등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여 선도적 역할을 한 근로자 대표 또는 사용자

발전유공자

학술·언론·문화·예술분야 등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

## 포상내용

훈장·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포상별 최소 공적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1년 이상

## 추천 및 접수

- ▶ 추천서류 추천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 ▶ 접수기간 2023. 6. 12.(월) ~ 7. 21.(금)
- ▶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
- ▶ 접수방법 접수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작성요령 참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추진일정

- ▶ 공적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 포상 실시 예정

### 국민추천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신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누구나 추천가능한 『국민추천제』를 시행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 추천 제외).

※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참여/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안내에 따라 고용노동부 분부 운영 지원과를 통해서 추천



## 재난에 대처하는 스마트 유비무환 기업재난관리사

Enterprise Disaster Manager

예기치 못한 재난과 그로 인한 피해는 개인은 물론, 기업과 사회에 큰 타격을 줍니다.  
재난 발생 시 재빠른 초기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언제 닥칠지 모를 또 다른 재난의  
예방을 위해 대책을 세우고 매뉴얼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해법을 제공하는 '기업재난관리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재난 재해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수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사회 재난, 지진 산불 및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 재난, 대형 인명 참사나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등의 인적 재난, 스마트 기술 발달로 인한 사이버 기술 재난 등 재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피해 양상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이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는 더욱 문제가 커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불거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 후폭풍일 것입니다. 지진이 일으킨 대형 쓰나미가 동일본을 강타하고, 그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중 최고 위험단계인 레벨7로, 1986년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일한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합 다발적인 재난은 개인과 지역 사회,

기업에 엄청난 피해와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 같은 복합재난에 대한 방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할뿐더러 이를 실행할 역량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AI, 빅데이터 등 급속히 발전하는 4차산업 기술이 재난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재난 모니터링과 같은 구조적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잦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높다고 하는데요. 대응과 복구 중심에서 예방과 대비 중심의 재난관리로 역할과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 중심의 재난관리로 역할과 범위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의 인증평가 대행을 통해 조직의 비즈니스 레질리언스(회복탄력성) 확보를 지원하는 한국연속성연구원 대표 양준입니다.

**Q. 기업재난관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기업재난관리사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는 국가 전문자격으로 기업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난관리 대책을 수립해주는 직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된 후 '기업재난관리사'라는 직종이

산업의 발전에 따라 과거와 양상이 달라진 재난에 대해 스마트한 관리와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생기게 되었는데요. 기업재난관리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성과관리를 고려하여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두고 사업의 연속성 관리를 수행합니다.

**Q. 기업재난관리 전문가가 되기 위한 소양과 역량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업재난관리사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재난관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환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조직을 이해하고 업무의 주요 기능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재난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설득력과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감각이 중요합니다.





### Q. 이 분야를 택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15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즈니스 중단을 경험하였는데, 그러던 중 사업 연속성, 비즈니스 레질리언스 등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중에 재난안전 관련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행정안전부 국가전문 자격 기업재난관리사 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방재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행정안전부 인가 (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부회장으로 인증 제도와 기업재난관리사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 Q. 관련 전문가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는 이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는 이론을 실제 적용하고 이를 고도화하여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안전 관련 인증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은 재난관리의 시작이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잘한다는 말보다 열정으로 현장을 리드하는,

기업재난관리 전문가는 재난 발생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깊은 사고력이 필요하고 재난과 재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현장 중심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 Q. 기업재난관리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조언이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치 못한 위험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 관리에 대한 리더십과 구성원에 대한 설득력이 훈련된다면 스마트 시대 재난관리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 ★ 직무 사전

#### ★ 직무명 기업재난관리사

★ **직무정의** 재난이 발생한 때 기업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경감계획을 수립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기업재해경감협회가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 **관련 전공** 재난안전시설과, 재난건설(토목)안전과, 재난안전시스템학과, 재난소방과 등

★ **직무 목표** | 실무과정 기업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수립, 실행 및 점검·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 함양 | **대행과정** 실질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 단계별로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실전문 전문지식 습득 | **인증평가과정** 재해경감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정량·정성적으로 평가가능한 실습위주 전문지식 습득

#### ★ 응시 자격

-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전문교육과정 이수 및 수료증을 소지한 자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 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받고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 분야 전문교육과정 이수 및 수료증을 소지한 자
-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받고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 이수 및 수료증을 소지한 자

# 잡담의 힘! 업무 효율과 친밀감 쏙~

## 두 마리 토끼 잡는 '스몰토크'



### 스몰토크의 필요성

스몰토크는 일상적이고 편안한 주제로 나눌 수 있는 대화를 뜻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 넘게 보내는 공간인 직장에서 스몰토크가 필요한 순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입사하고 동료들끼리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시기일 때, 점심식사를 하러 갈 때 등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기도 하지요. 이때 대화 주제는 무겁고 심오한 것보다는 가벼우면서도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게 좋습니다. 흔한 잡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스스럼없이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경직된 분위기를 풀 수 있음은 물론 동료들의 성격까지 파악할 수 있죠. 이는 업무를 처리할 때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고충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준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본격적으로 채용 시장에 뛰어들면 신경 써야 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렵사리 취업의 관문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취준생의 고민은 멈추지 않습니다. '과연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업무 외에 동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 등 직장 생활에서의 대화와 소통 방식에 곤란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며 동료들 사이의 적당한 친밀감은 원활한 업무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딱딱한 분위기를 깨고 지나치게 팽팽했던 긴장감도 풀 수 있는 방법인 스몰토크에 대해 알아볼까요?



### 가볍게, 그러나 무례하지 않게

열질러진 물은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은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직장에서 말실수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선을 넘어서는 안 되겠죠. 때로는 침묵이 불편한 대화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애인의 유무, 정치 및 종교적 견해와 같은 사생활 영역은 스몰토크의 주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외모 칭찬 역시 오히려 듣는 이에게 부담과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몰토크는 진중한 대화보다는 휘발성 강한 대화를 기억하세요.

###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가장 무난한 주제는 날씨, 교통, 음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깊게 파고들지 않으면서도 대중적인 영역입니다. 그날의 일기예보, 날씨의 변화에 따른 옷차림 변화 등을 한마디씩 언급하기만 해도 훌륭한 스몰토크가 완성됩니다. 출근길의 교통 혼잡도, 통근시간 또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죠. 이외에 점심식사 메뉴 선택, 음식의 맛, 식당의 인테리어, 새로 생긴 카페 등 음식과 관련된 주제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 7월의 스몰토크(Small Talk) 추천

- ✔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데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 ✔ 회사 근처에 여름 별미 음식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 점심식사로 어떠세요?
- ✔ 이번 여름에 개봉하는 영화 중 어떤 것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 ✔ 저는 여름에는 청량한 분위기의 곡을 듣는 편인데, 좋아하는 노래 장르가 있으신가요?
- ✔ 햇벌이 너무 강해서 선스크림을 사고 싶은데 추천하는 브랜드가 있나요?

???



### 경청하는 자세

대화를 할 때는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했던 내용을 반복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과도하게 억측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질문 세례 역시 금물입니다. 자신의 의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에 귀 기울여 상호 의사소통을 지향해야 하죠. 말하는 이의 쪽으로 몸을 살짝 돌리는 것만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감하는 주제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짓을 하는 등 적당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에서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는 건 어떨까요.



## 리더의 담대한 비전이 쏘아올린 상생의 혁신, 천문:하늘에 묻는다

조선 시대 경제의 근간인 농업 발전을 위해 과학 기구를 발명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은 장영실이라는 천재를 만나 그 꿈을 실현한다. 20년을 함께하며 위대한 성과를 이뤄낸 두 사람은 신분을 뛰어넘는 특별한 우정을 나누지만, 세종 24년 이른바 '안여사건' (임금이 타는 가마인 안여가 부서진 사건)으로 인해 가마 제작을 감독한 장영실이 세종으로부터 사건을 조사 받고 고문에 시달리게 된다. 이후 장영실에 대한 기록은 역사 속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게 된다.

**개봉** 2019.12.26.  
**장르** 팩션사극

**감독** 허진호  
**주역** 한석규(세종대왕 역)  
최민식(장영실 역)  
**출연** 신구, 김홍파,  
김태우, 김원해 등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는 조선의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과 관노 출신 천재 과학자 장영실이 만나 이룬 위대한 업적들 뒤 숨은 이야기를 다룬 역사 드라마다. 동시에 조선의 가장 높은 곳을 사는 왕과 가장 밑바닥을 사는 천민의 신분을 뛰어넘는 협업을 그린 상생의 드라마로, 강대국의 압력 속에서도 그들의 것이 아닌 조선만의 시간과 역법을 만들고자 했던 혁신의 드라마다. 영화는 기술의 혁신을 넘어 한 시대에 대한 혁신

을 그린다. 세종이 꿈꿨던 혁신은 체제의 반란이었다. 사대의 예를 부정하는 것도, 노비 출신 장영실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도 국가의 통치 이념 자체를 배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신분 체계는 나라의 근간이라며 장영실을 거세게 반대하던 신하들에게 세종은 이렇게 말한다.

“과인은 재주 있는 자에게 관직을 내려 이 나라를 이롭게 하려는 것이오”

기존의 관습과 관행을 배반한 세종의 선택은 도

전이며 용기였고, 장영실에게 세종은 시대를 거스르면서까지 자신의 진면목을 알아준 생의 은인이었다. 한 개인의 의지 혹은 천재성만으로 혁신을 이루기란 어렵다. 그러나 뜻이 맞는 동반자를 만나 협력한다면 혁신의 실현은 더욱 가까워진다. 그렇게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동지애는 역사상 손꼽히는 상생의 혁신을 이루어낸다.

그러나 안여사건이 터지고 이들의 혁신도 산산이 부서진다. 군신 관계를 초월해 함께 별을 바라보며 격의 없이 대화하고, 문풍지에 별자리를 그리며 서로의 꿈을 공유하던 그들은 결국 국문장에서 죄인과 신문자로서 다시 만난다. 그러나 생사를 앞두고 벌이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애뜻한 배려와 의리를 보이는 이 장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들이 한 일이 왜 시대에 대한 혁신인지 보여주는 명장면이다.

그 시절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모험은 위대한 역사적 혁신을 만들어냈다. 혁신이 안정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혁신은 과연 무



“

과거엔 혁신을 모험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혁신하지 않는 것이 모험이다.

화웨이 회장

엇이어야 할까. 모르긴 몰라도 서로의 진심을 알아채고 함께 도전하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변함없이 지켜야 할 혁신의 근본이 아닐까 싶다.



### 고락을 나누며 성장하는 상생과 혁신의 스폰서십

한국야구위원회(KBO) 리그 프로야구단은 주로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며 구단을 운영한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모기업 없이 네이밍 스폰서(명칭 후원)를 운영하는 팀이 있다. 바로 ‘히어로즈’ 팀이다.

대기업 현대가 모기업이었던 현대 유니콘스의 해체 후 재창단된 서울 히어로즈는 우리담배, 넥센 타이어를 거쳐 현재는 키움 증권과 스폰서십을 체결 중이다. 창단 초 불안정한 스폰서십으로 오랜 기간 재정난을 겪은 히어로즈팀은 넥센 타이어와 스폰서십을 맺은 후 점차 자리를 잡게 된다.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팀들에 비해 재정 규모나 안정성은 떨어졌지만, 이러한 스폰서십이 정착되면서 2013년 이후 꾸준히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는 등 강팀으로 거듭난다. 아울러 이들과의 스폰서십을 체결한 기업들도 이전에 비해 기업 인지도 및 성과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시도엔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서로의 필요와 행동이 맞물릴 때 위험은 더 큰 결과를 위한 추진력이 된다. 이것이 상생의 혁신이다.



Love  
My  
Self

출근과 퇴근으로 반복적인 업무 사이클이 계속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피곤해지면 주변을 돌아보는 일이 힘에 부칠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까 걱정되기도 해요. 그런 상태를 방치하다가 슬럼프나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일과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나를 잘 보살펴야 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는 셀프 케어 방법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요. 분주한 일상에서 숨 돌릴 틈을 찾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타협할 수 있을까요?

# 지친 나를 위해 나를 돌보는 방법



## 나에게 주는 작은 사치

수고한 나 자신에게 격려와 응원을 담아 선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매를 망설였던 제품이나 공연 티켓 등 자신에게 의미 있을 만한 선물을 고르는 거예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얻는 것이지요. 선물을 기다리는 동안 들뜬 기분과 기대감을 잘 활용해보아요. 다음으로 가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어요.



## 나의 몸을 사랑하자

사회적 기준의 아름다운 몸을 지향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건 어떨까요? 무엇보다 내 신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미적인 요소보다는 건강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요. 업무를 지속하려면 마음 근육과 더불어 체력 또한 뒷받침해주어야 하지요. 적당한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에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낮 동안의 생활에도 도움을 줄 거예요.



## 남자도 관리하는 시대

자기관리는 자존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남성 고객의 스킨케어 및 미용 제품 구매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요. 이제는 드럭스토어에서도 남성 섹션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담을 느낄 남성들을 위해 과한 꾸밈보다는 자연스럽게 정돈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잘 마련돼 있어요.

외관에서 드러나는 청결, 향,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배쓰밤, 바디스크럽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청소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처럼 나를 가꾸며 마음을 정돈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중요해요.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자신을 관리한다는 감각을 통해 자존감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 취향대로 소비하는 제품

제품을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표준 조리법이 아니라 색다른 방식으로 재창조해내는 사람들을 체험적 소비자라고 일컫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해 화제가 됐던 '짜파구리'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소비하고 있으며,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확산되는 구조이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과 맛 평가를 나눌 수도 있지요. 매대에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면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성공과 유쾌한 실패를 반복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배도 부른 일석이조의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모든 방법들의 공통적인 지향점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예요.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 나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나를 파악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바쁜 일상만 사람의 감각을 무뎠게 만들기도 해요. 그럴 때일수록 내면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야 외적으로도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나 자신과의 애착관계를 잘 형성한다면 외부와의 관계들도 좀 더 쉽게 트일 거예요.

# 넬툰

글·그림  
장효준

취업의 조건 : 토익편

취업을 위해 토익에 도전했다.



영어경력 11년(초,중,고)  
토익을 만만하게 보았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의지개선을 위해서 조장을 맡았다.



다른쪽으로 의지가 좋아졌다.



알아보기 힘들 정도지만,  
성적은 오르더라.



취업의 조건 : 코딩학원편

IT고수가 되기 위해,  
코딩학원에 등록했다.



주변에선 돈도 들고,  
초보는 어렵다고 했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어,  
두렵지 않았다.



그래도 어떤 분야에선 나름의 재능이  
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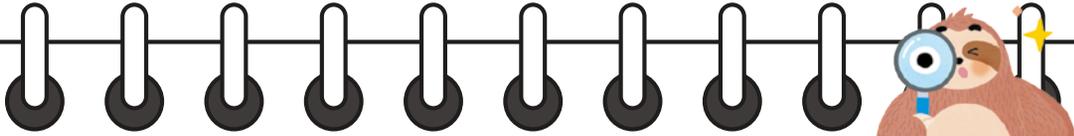


이것이 테란 황제의  
지능플레이이다!!



물론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 알아보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2022년 7월 12일 도입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Q 사전지정운용제도, 왜 필요할까?

퇴직연금 가입 후 까맣게 잊고 지내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퇴직연금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이런 식으로 방치되고 있는 퇴직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 Q 사전지정운용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퇴직연금 가입자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가입자가 총 6주 동안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선택한 가입자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Q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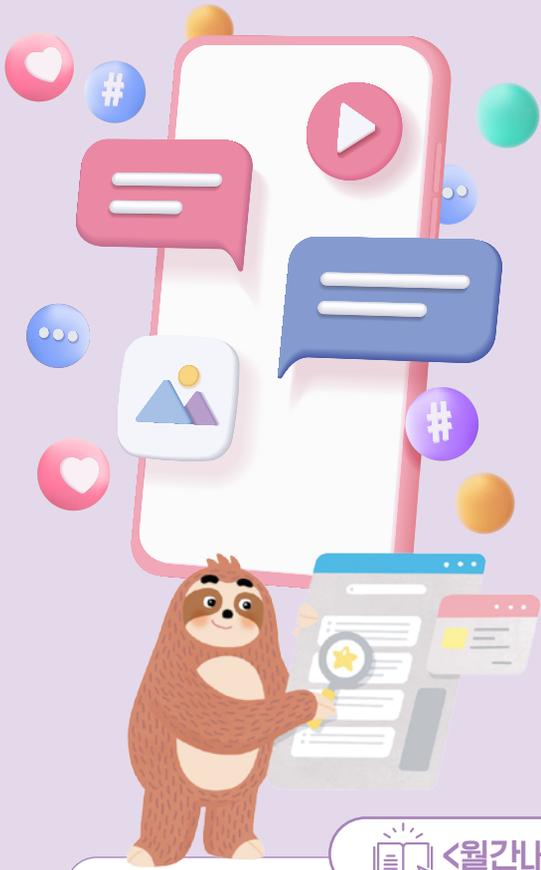
가입자는 이미 선택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할 때는 중복 선정은 불가하며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Q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상품에는 100% 원리금보장상품, 100% 펀드(TDF, BF, SVF, SOC)상품,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상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치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품들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해야 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실 - '디폴트옵션' 검색)

# #일스타그램



## 웹진에서 만나는 #일스타그램 이벤트



여러분의 일은 어떠신가요?

자랑하고픈 근무 환경, 든든한 나의 동료,  
보람찬 나의 업무, 노력이 묻어나는 구직활동까지.

<월간내일>에서 구독자들 저마다의 '일'을 모두와 공유하며  
함께 공감하고, 웃고, 즐겨 보아요.



### 참여방법

- 1.인스타그램에 나의 '일'을 표현하는 사진을 선택한다.
  - 2.본문에는 관련 코멘트와 함께 해시태그 '#월간내일\_일스타그램'을 필수 기재하여 게시한다.
- \*비공개 계정은 참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참여혜택

참여 게시물이 해당 웹진에 게재될 시, 디지털 쿠폰을 지급합니다.  
당첨자에게 별도의 연락을 드립니다.



## <월간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01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웹진 바로가기

02

왼쪽의 늘봄이(QUICK MENU)를 클릭  
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쪽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03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